第298回國會
(臨時會)

國際競技大會開催및誘致支援特別委員會會議錄

第 8 號

國 會 事 務 處

日 時 2011年3月10日(木)

場 所 第3會議場(245號)

議事日程

1. 국제경기대회 추진현황 보고
   가. 문화체육관광부
   나.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다.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
   라.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위원회

審査된案件

1. 국제경기대회 추진현황 보고 ····· 1
   가. 문화체육관광부
   나.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다.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
   라.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위원회

(11시04분 개의)

○위원장 황우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8차 국제경기대회개최및유치지원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국제경기대회 추진현황 보고

가. 문화체육관광부

나.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다.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

라.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위원회

○위원장 황우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국제경기대회 추진현황 보고를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한 가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조직위원장이 대회 홍보 마케팅 관계로 현재 일본에 출장 중입니다. 그런 관계로 부위원장이 대신 출석함을 양해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오늘 출석 예정으로 국회에 오셨는데 지금 법사위에서 법안이 결의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의결을 마치는 대로 오시겠고 그 사이에는 차관께서 와 계십니다. 위원님들 다른 말씀 없으시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부차관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박선규 안녕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2차관 박선규입니다.

존경하는 국제경기대회개최및유치지원특별위원회 황우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법사위원회 참석으로 인해서 장관을 대신해서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양해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8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및 2011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그리고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준비 상황을 보고드리게 돼서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개최 준비 중인 F1 코리아 그랑프리대회,

2015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를 비롯해서 주요 국제경기대회에 대한 위원님들의 관심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부터 계속되고 있는 구제역 파동으로 농촌경제가 어려워지고 최근 중동지역의 민주화 열풍으로 인해서 고유가 현상이 지속되는 등 국내외 여건들이 국민을 많이 힘들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국민들이 어려운 상황을 맞았을 때 국제경기대회에서 우리 스포츠 선수들의 도전과 열정이 국민을 신명나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지난 2월 카자흐스탄에서 개최된 동계아시아경기대회에서도 우리 선수들이 우수한 경기력으로 메달을 획득할 때마다 온 국민이 함께 기뻐하고 격려해 주시던 모습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그동안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이 시간을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또한 드리고 싶습니다.

올해는 국제스포츠계에서 우리나라 스포츠 강국의 면모와 위상을 한층 더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는 뜻 깊은 한 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는 7월 확정되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성공과 8월과 10월 개최 예정인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그리고 F1 코리아 그랑프리대회를 차질 없이 준비해서 국민께 감동을 선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를 비롯한 모든 국제대회가 성공적인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황우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지금부터 국제대회 추진현황을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8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사안입니다.

유인물 1쪽에 있습니다.

2018년 동계올림픽 유치 준비상황을 보고드립니다.

지난 2월 14일부터 20일까지 평창에서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1차 관문인 현지실사를 무사하게 치러냈습니다. 평가위원들로부터 진전된 평창의 모습을 보여 줬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좋은 평가에도 불구하고 조양호 위원장을 비롯한 모든 유치 관계자들이 긴장을 늦추지 않고 계속 최선을 다한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오는 5월 스위스 로잔에서 개최될 테크니컬 브리핑과 7월 남아공 더반에서 개최될 개최지 선정 IOC 총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3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AIPS 총회, 4월 런던에서 개최되는 SportAccord 등 주요 국제행사에 평창 유치의 타당성을 집중 홍보할 예정입니다.

또한 IOC 위원별 전담 마크맨을 통해서 일대일 맞춤식 유치활동과 주요 국제행사에 정부 주요 인사가 참여하여 정부의 유치 의지를 보여 주는 등 전방위적인 유치활동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들의 동계올림픽 개최 열망, 진전된 평창의 모습 등 평창의 유치 타당성을 적극 홍보해서 반드시 평창동계올림픽을 유치할 수 있도록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다음은 2011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관련 사안입니다.

유인물 2쪽에 있습니다.

금년 8월 대구스타디움에서는 세계적인 육상선수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화합과 경쟁을 펼치는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가 개최됩니다.

대구대회는 모든 시설은 금년 7월 완공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전체 공정률이 90%에 달하는 등 차질 없이 준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는 4월 대구국제마라톤대회, 5월 대구국제육상경기대회 개최를 계기로 대회 운영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면서 무결점 대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구대회는 문화와 체육·관광이 어우러지는 축제의 장으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가브랜드를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대회 준비상황 점검을 위해서 조직위와 대구시, 한국관광공사 등 관련 기관이 참여하는 문

화·관광·홍보 협의회를 구성해 놓고 있습니다. 제가 위원장이 돼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는데 지난 3월 2일 1차 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월 1회 회의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현안이 생길 때마다 수시로 회의를 개최해서 관련 사항들을 철저하게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4월과 8월에 개최될 국제육상경기연맹의 집행위원회와 총회에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의지를 보여드릴 계획입니다.

다음은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관련 내용입니다.

유인물 3쪽에 있습니다.

2014년 9월 개최될 예정인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준비상황입니다.

인천시가 인천아시아경기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당초 승인된 대회시설 이용계획 일부를 변경해서 승인을 요청해 왔습니다.

변경된 주요 내용은 개최종목 수가 당초 38개에서 2개 줄어든 36개로, 경기시설은 당초 99개소에서 11개가 늘어난 110개소로, 총 사업비는 1조 1630억 원에서 1729억 원이 증액된 1조 3359억 원입니다.

현재 기획재정부와 총 사업비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대회지원법의 절차에 따라서 실무위원회와 지원위원회를 개최해서 최대한 신속하게 승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1 F1 코리아 그랑프리대회입니다.

유인물 4쪽입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두 번째로 금년 10월에 전남 영암에서 개최됩니다. F1 코리아 그랑프리대회는 지난해에서 문제점으로 제기된 사항을 집중적으로 보완해서 성공적으로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추진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대회운영기업의 운영기능을 조직위로 이관하고 F1호텔, 텐트촌, 한옥민박상품 등 숙박시설을 확대·지정하고 숙박정보시스템도 정비했습니다.

또한 지난 3월 2일 힐튼호텔에서 2011 F1 그랜드 론칭 행사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입장권 판매수입금을 대폭 확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13년 평창 동계스페셜올림픽 관련 사안입니다.

유인물 5쪽입니다.

2013년 1월 평창, 강릉 일원에서 개최될 예정인 평창 동계스페셜올림픽 준비상황입니다.

지난해 12월 조직위원회를 발족하고 금년 1월 사무처를 구성했습니다. 현재 대회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용역을 착수했고 대회 상징물 개발을 위한 공모절차를 이행하는 등 차질 없이 대회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보고드립니다.

대회 성공 개최의 기반이 되는 대회지원 특별법이 발의된 상태이므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013년 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입니다.

유인물 6쪽에 있습니다.

충주대회는 천혜의 지리적 조건을 구비한 충주 탄금호 국제조정경기장에서 2013년 8월에 개최될 예정입니다.

충주대회는 단계별 홍보계획을 마련해서 1단계로 국내 홍보, 2단계로 참가대상국 홍보 그리고 3단계로 관중 및 관광객 대상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 4월에는 2012 런던올림픽 조정경기 아시아지역 예선대회를 이곳에서 개최함으로써 2013년 세계조정선수권대회 경기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14년 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입니다.

유인물 7쪽에 있습니다.

2014년 10월 인천에서 개최될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준비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인천시 지원본부 내에 지원팀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까지 대회 지원을 위한 조직위원회를 설립하고 대회 준비 기본계획 및 마스터플랜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시아장애인올림픽협의회, 국제장애인올림픽협의회 등 국제기구와 공조를 통해서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를 인천아시아경기대회와 동반 개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입니다.

유인물 8쪽입니다.

현재 수립이 완료된 마스터플랜에 따라서 분야별 액션 플랜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까지 대회 슬로건, 마스코트 및 엠블럼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대회시설은 적정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서 금년 2월부터 기획재정부의 간이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하반기 중 대회지원법의 절차에 따라서 대회시설이용계획을 최종 승인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국제경기대회 유치 및 개최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우여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부위원장 문동후 먼저 조직위원회 조해녕 위원장께서 홍보마케팅을 위한 해외 출장으로 금일 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양해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황우여 국제경기대회개최및유치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산적한 국정 현안과 주요 법안 처리 등 바쁘신 국회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비롯한 국제대회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대회 준비상황에 대한 보고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의 성공적 개최가 국가의 품격을 높이는 것은 물론, 우리 대구가 세계적 도시로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대구경제의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될 것임을 깊이 인식하시어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 속에서 우리 조직위원회는 대구시민들과 함께 2011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준비를 착실히 해 나가고 있습니다.

국제육상경기연맹의 규정에 맞춘 완벽하고 쾌적한 경기시설과 편의시설을 갖추고, 최고 수준의 대회 운영능력을 확보해서 참가 선수들이 최고의 기량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대구시민들의 열정적이고 자발적인 자원봉사와 대회 참여를 통해 대회에 참가한 선수·임원뿐만 아니라 지구촌 모든 가족들에게 '2011년 8월, 대구에서의 감동'이라는 네 번째 메달을 가슴속 깊이 새겨주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로서 대회가 170일 남았습니다. 우리 조직위원회에서는 대회 성공이란 목표를 위해 남은 기간 분골쇄신하는 각오와 자세를 가지고 대회를 준비하고 운영할 것입니다.

특위 위원님들께서도 오는 8월 우리나라 육상선수들이 세계적 선수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경기를 펼치고 온 국민들이 기대와 흥분으로 지켜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1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직위원회의 일반현황과 창립 경과 등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11년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13쪽입니다.

○위원장 황우여 부위원장님!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부위원장 문동후 예.

○위원장 황우여 유인물은 우리 위원들께서 이미 배포돼서 주지하시고 있는 바이니까 현재 상황에서 현황과 문제점 또 제안하실 것 있으면 내용을 좀 간추려서 간략하고 중점적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부위원장 문동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우여 15페이지부터 하셨으면 하는데요.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부위원장 문동후 예, 대회시설 확충입니다.

경기 관련 시설은 국제육상연맹의 규정에 적합한 시설로 보완·확충 중에 있습니다.

경기장에서 추진되는 12개 사업 중 9개 사업은 이미 완료하였고, 구내 방송·통신설비 개·보수공사, 투척전용 준비운동장 설치 사업 등은 일정에 맞추어 7월 이전에 모두 완공될 것입니다.

16쪽입니다.

선수·미디어촌 건립은 현재 97%의 공정으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4월에 준공하여 5월 시설물 인수와 함께 소요 물자를 배치하고 8월 20일 개촌하게 됩니다.

또한 선수촌 연습장과 부대시설은 7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하여 선수촌 개촌과 함께 선수·임원들이 시설을 이용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17쪽입니다.

로드레이스는 대회 흥행을 위해서 도심 중심가로를 순회하는 Loop 코스로 개발하여 작년 3월 국제육상연맹의 승인을 받았으며 코스구간 내 정비사업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18쪽입니다.

홍보활동 및 마케팅 강화입니다.

대회 홍보활동과 마케팅은 개최 도시 대구와 대회를 알리는 도시 브랜딩을 실시하고, 국민 관심도와 육상 붐 조성에 중점을 둔 단계적인 홍보활동을 전략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대회 상징 이미지를 활용하여 도시와 경기장에 대한 브랜딩 작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오는 4월에는 육상 홍보영화를 개봉하고 대회 공식 주제가 제작·발표회도 가질 예정입니다.

19쪽입니다.

대회 홍보는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고 즐길 수 있으며, 경기 관람과 직접 연계되는 아이템을 개발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외국인 학생과 근로자, 다문화가정, 마라톤클럽, 시민서포터즈 등 다양한 계층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맞춤형 홍보활동과 함께 방송 언론 인터넷 등 미디어를 활용한 홍보활동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제대회 구현을 위하여 국내 후원사를 적극 모집하고, 체육진흥투표권 증량 발행을 통해 대회 수익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대회기간 중 만석 경기장 실현을 위해서 D-150일인 3월 30일을 기해서 대회 홍보 및 입장권 판매 전국 로드쇼를 실시하고, 다양한 경기 관람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으며, 현재 입장권 예매 실적은 약 20만 매, 44%입니다.

대회 공식 이벤트와 문화행사는 짧지만 강렬한 인상을 줄 수 있는 콘텐츠로 육상과 문화의 퓨전 축제의 장으로 마련하여 대구와 한국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제고하는 브랜드 전파의 장으로 활용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원숙한 경기운영 역량 제고입니다.

우수한 경기운영요원 양성을 위해서 대회 때까지 심판아카데미를 운영하고 경기운영 현장실무 교육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2011대구국제마라톤대회(4월 10일), 국제육상대회(5월 12일)를 Test Event로 개최해서 대회 3일 전부터는 IAAF, 대한육상연맹, 기술제공업체가 참여하는 드레스 리허설을 개최하여 경기운영 역량을 최적화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최상의 대회운영 시스템 구축입니다.

최고의 의료서비스, 도핑 시스템, 위생관리체제 구축을 위해서 공식운영병원과 후송병원 등을 지정하는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 분야는 선발된 11개 분야, 6133명은 교육 훈련 등 능력향상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자원봉사자 운영의 효율성을 최대한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숙박, 출입국, 식음료 등 지원 분야는 그 일정에 맞게 면밀한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입·출국 편의제공을 위해서 입국허가 서류를 간소화하고, 대한항공을 대회 후원사로 참여시켜 인천-대구 항공편을 1일 2~4회 증편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회 소요물자 확보도 VIK, 무료 임차, 구매의 순으로 확보하여 최대한 예산을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관람객 수송과 대회기간 중 교통소통을 위하여 무료 셔틀버스 운행, 시내버스 노선 증편, 자가용 홀·짝제 운영 등 별도의 교통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미디어들의 편의제공을 위해서 스타디움 내에 메인 프레스센터를 구축하고 국제방송센터 운영과 국제방송신호 제작 지원을 통해 역대 최고 품질의 국제방송신호로 80억 지구촌 가족들이 현장감 있는 감동까지 느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의전 및 국제협력 분야는 그 일정에 맞춰 면밀한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특히 대회 안전 분야는 변경된 국제대회 안전대책에 맞추어서 조직위원회 경찰청 소방본부 국가정보원 등이 참여하는 지역테러대책협의회를 구성하였고, 관련 기관 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대회 안전보장을 위한 체계적 안전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육상 경기력 향상입니다.

한국 육상 경기력 향상은 대회 최상의 홍보수단으로서 현재 대한육상연맹 주관으로 외국인 감독 영입과 선진기술 지도, 세계대회 진출 유망선수에 대한 막바지 맞춤형 훈련 액션 플랜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메달 획득 포상금, 기록 포상금 등을 대폭 높여서 육상인들의 사기 진작과 한국 육상이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7쪽입니다.

마지막으로 대회 성공을 위한 건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조직위원회에서는 육상 저변이 취약한 관계로 국민적 관심도 부족 등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시·도교육청, 국제행사 개최 기관 등과 긴밀한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 관심도 제고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홍보수단은 전국 공중파 매체를 통한 특별 기획 프로그램 또는 아이돌 스타, 스타 선수들이 출연하는 대회 홍보 버라이어티 쇼 등이 제작 방송될 수 있으나 재원과 미디어 관심 부족으로 사업 추진에 애로가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2011대회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제고를 통해 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대회 홍보 효과와 참여도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중앙정부 차원의 매머드급 이벤트와 광고방송의 적극적인 추진을 건의드립니다.

우리 조직위원회는 2011대회의 성공이 우리 대구의 발전과 대한민국 국격 상승을 위한 새로운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 준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우여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장 이연택 존경하는 황우여 국제경기대회개최및유치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조직위원회의 업무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조직위원회는 대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대회 상징물인 엠블럼 그리고 마스코트 등을 개발·공표하였으며, OCA와의 협조를 통해서 경기종목을 조기에 확정하여 대회 경비 절감은 물론 대회 준비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1월 광저우대회에서 대회기를 인수해 온 이후에 본격적인 대회 준비체제로의 전환을 위해서 우선 광저우대회에서 얻은 그 교훈과 시사점을 반영하여 대회 목표를 실용적으로 수정하였고, 조직 개편을 통해서 국제 분야와 운영분야의 양 사무차장제를 신설 보강하고 역량을 갖춘 인사를 영입하는 등 조직의 재정비를 마치고 본격적인 대회 준비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희들의 노력과 함께 지난 2월에 OCA의 방송 분야 등 감사 점검단으로부터 인천의 준비상황이 역대 아시아경기대회보다 약 1년 정도 앞서 준비되고 있다는 좋은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는 국회와 정부 등 여러 관계 부처 지원의 덕분으로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조직위원회에서는 88올림픽, 2002월드컵 등 지난 86년 그리고 2002년 부산아시안게임 등 그동안에 축적된 국제스포츠 개최 경험을 살려서 스포츠 경기는 물론 문화·예술, 첨단정보기술, 관광 등이 함께 어우러지는 종합적인 스포츠 문화축제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역대 가장 모범적이고 알찬 아시안게임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해서는 이 자리에 함께하신 여러 위원님들의 계속적인 성원과 지도가 있어야만 성공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계속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려마지 않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배석한 저희 조직위원회 간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먼저 배종신 사무총장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이번 새로 영입된 서정규 운영사무차장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김중재 국제사무차장을 소개합니다.

신상철 기획본부장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인천시 소속으로서 저희 대회를 지원하는 총괄책임을 맡고 있는 대회지원본부장으로 있는 이정호 본부장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저희 조직위원회 업무보고는 사무총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배종신 사무총장 배종신입니다.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우여 총장님도 지금 시간이 워낙 촉박하기 때문에 11쪽 이하를 간략하게 해 주시고 또 우리 위원님들 질의할 때 상세히 보고해 주시고 그런 취지로 하셨으면 합니다.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배종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인천아시아경기대회는 앞으로 3년 6개월

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 9월 19일에 개최되는 그렇게 기간이 많이 남지 않은 대회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12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대회 준비상황 중에서 아까 위원장께서 준비 체제에 관해서는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경기운영 프로그램을 위해서는 세부 경기종목 작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문화행사에 있어서는 감동을 주고 화합하는 문화행사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금년도부터 문화행사의 컨셉을 연구하기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회 참여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체계적인 홍보를 추진하고 범국민 참여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첨단 IT기술을 활용하여서 스마트아시아경기대회를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의 모바일 활용이라든지 SNS의 활용 그리고 TV 중계의 조기 구축 등도 추진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경제적이고 실용적인 대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개최 경비절감을 최대한 다각적으로 강구하겠습니다. 그래서 종목 추가를 금지를 하고 인력·물자의 낭비 요인을 제거를 하고 특히 인천시 등 관련 기관과 협조를 해서 경비를 절감하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대회 중앙정보처리센터를 인천 인터넷데이터센터와 공동 활용함으로서 현재 한 30억 이상을 절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전국체전 등의 장비도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마케팅 수익도 극대화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OCA 및 경기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OCA와는 현재 주요 현안에 관한 협의가 종료되었고 상호 아주 우호적인 협력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외 경기단체와도 적극적인 협조 체제가 구축되어서 원활한 대회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우여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018평창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유치위원장 조양호 안녕하십니까? 2018평창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 조양호 위원장입니다.

먼저 오늘 보고회를 마련해 주신 존경하는 황우여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특위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수차례 유치지원특별위원회 개최와 올림픽유치 지지결의안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이러한 전폭적인 지원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난 2월 IOC의 실사에서 평창은 IOC와 국제스포츠계에 '준비된 평창'의 모습, 정부와 국회의 확고한 지원의지, 전 국민적인 열정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개최지는 이러한 객관적인 평가 결과보다는 IOC 위원들의 주관적 판단에 따른 투표로 결정되므로 IOC 위원 개개인의 표심을 얻을 수 있도록 남은 기간 더욱 치밀하게 유치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입니다.

반드시 오는 7월 남아공 더반에서 승리의 기쁜 소식을 전 국민께 전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황우여 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특위 위원님들의 더 큰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치 추진 상황에 대해서는 유치위원회 사무총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사무총장 하도봉 유치위원회 사무총장입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그간의 추진 실적, 향후 계획, 현지 실사 등을 중심으로 해서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추진 내용입니다.

그간 ANOC, OCA, EOC 등에서 아시아 동계스포츠 확산이라는 일관된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평창 유치 가능성을 설명을 한 바가 있고 또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를 중심으로 한 8명의 선수출신 유치팀을 구성해서 IOC 위원 중의 선수 출신 IOC 위원에 대한 득표활동을 추진해 왔습니다.

또한 벤쿠버올림픽 등 주요 국제대회·행사에 57회 참석하여 유치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고 국내외 주요 매체 등을 통해서 지속적인 경쟁우위 확보를 위한 미디어 홍보활동을 강화해 왔습니다.

유치활동 여건입니다.

지난 두 번의 유치 과정과 그동안 전방위적 국제 홍보활동 노력에 따라서 평창에 대한 신뢰도 및 인지도 확산 등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고 특히 경기장 건설이라든지 드림프로그램 등의 그런 지속적인 추진으로 IOC와의 약속 사항을 성실히 이행했다는 그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IOC 평가단의 현지 실사를 통해 정부의 지원 의지, 국민들의 지지도, 경기장 시설과 인프라 확장 등 '준비된 평창, 진전된 평창' 그런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충분한 경쟁력을 갖춘 곳으로 호평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개최지 결정은 이러한 객관적인 평가보다는 IOC 위원들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투표로 결정되는 경향이 높기 때문에 남은 기간 IOC 위원들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강화, 유치 성공을 위해서 총력 유치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향후 중점 추진전략입니다.

앞으로 국내 주요 언론, CNN 등 해외 유력 미디어 등을 통해서 지속적인 홍보 활동을 추진해 나가고 또 주요 국제대회·행사를 활용한 유치 홍보를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주요 국제행사로는 금년 3월 22일부터 서울에서 열리는 AIPS 총회, 두 번째 3월 23일부터 3월 27일까지 뉴칼레도니아에서 열리는 ONOC 총회, 4월 3일부터 영국 런던에서 열리는 스포츠어코드, 5월 18일부터 스위스 로잔에서 열리는 후보도시 브리핑, 마지막으로 최종 개최지가 결정되는 남아공 더반에서의 IOC 총회 행사까지 참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IOC 현지 실사결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실사는 2014 당시보다 확실히 진전된 모습을 실사단에게 또는 외신들에게 각인을 시켜주었고 대통령님, 국무총리 이하 각부 장관 또 황우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분들이 직접 참석해 주셔서 범정부 또는 범국가 차원의 강력하고 확고한 동계올림픽 유치 의지를 전달했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열렬한 환영, 강릉 빙상경기장에서의 2018명의 강원대합창 등 감동적인 이벤트를 통해서 평창의 강점인 국민의 유치 열기를 과시했습니다. 또 IOC와 국제 스포츠계에 우리가 약속한 경기장 건설 등을 통해서 우리 평창의 발전상을 확실하게 전달했습니다.

평가단의 공식기자회견 결과는 '아름다운 평창에서 시간을 갖게 되어 매우 기뻤고 심사기간 중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확인했다'고 구닐라 위원장께서 언급을 하셨고 무엇보다도 도민의 열렬한 그런 열정을 느꼈으며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확인하고 미디어에 대한 관심에도 고마움을 표시했습니다. 또한 지난 두 번의 비드보다 많은 진전된 사항, 정부의 전폭적인 지지 또 동계 스포츠 발전에 대해서도 확인을 했다고 언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 평가보고서는 5월 11일 발표될 예정이고 조사평가단은 후보 도시 간 비교를 하지 않고 도시의 강점과 리스크 등 기술적인 사항을 평가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국내외 언론들은 또는 주변에서의 여론이 실사를 좋게 받았다고는 하지만 평가단의 현지 실사는 유치 과정의 하나일 뿐입니다. 실사 결과도 3개 후보도시가 크게 별 차이가 없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유치위원회는 실사 결과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조양호 유치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합심단결해서 7월 6일 최종 결정에까지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올림픽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우여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번 실사단 평가회에서는 이명박 대통령님 그리고 이건희 위원님을 비롯해서 본 위원회에서도 본 위원장과 지역 의원이셨던 존경하는 권성동 위원님 또 최종원 위원님이 갔었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참 감사했습니다.

○이용경 위원 위원장님, 저도 갔습니다.

○위원장 황우여 이용경 위원님도 갔습니다. 맞습니다. 이용경 위원님 그때 가 가지고 현장에 있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조양호 위원장님과 하도봉 사무총장님을 비롯한 여러 조직위원회의 위원님들의 수고에 위원장으로서 사의를 표하고 그러나 아직 7월까지 조금도 마음을 늦추지 마시고 최선을 다하셔서 국민들께 그리고 강원도민들께 좋은 소식을 전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그럼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시고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간사위원들과 협의한 대로 위원 1인당 주 질의시간을

5분으로 일단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에는 답변시간도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유념하셔서 요점 중심으로 질의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존경하는 권성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성동 위원 강원도 강릉 출신 한나라당 권성동 위원입니다.

지난번 2월 평창동계올림픽 IOC 실사 때 이명박 대통령 또 김황식 국무총리를 비롯한 관계부처 장·차관들이 대거 현지에 내려가셔서 실사지원을 하셨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고 강원도민들은 '정부의 유치 의지가 참으로 확고하구나' 하면서 굉장히 든든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실사는 유치의 필요조건에 불과합니다. 충분조건이 아닙니다. 충분조건은 IOC 위원들에 대한 개별적인 설득과 공약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정부의 강력한 유치 의지가 실제 활동으로 연결되어야만 유치라는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대통령님과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7월 6일 유치 결정이 될 때가지 계속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주무부처인 문화관광부에서 앞장을 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사와 또 활동 계획이 다 준비되어 있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박선규 예, 그렇습니다.

○권성동 위원 그리고 조양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유치위원회 관계자들도 굉장히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네 번에 걸쳐서 남은 발표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야말로, 국내에서의 어떤 지위가 있는 분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설명자로, 프리젠터로, IOC 위원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그러한 외모와 또 말솜씨와 또 언어구사능력을 가진 사람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있어서 내가 나가야 된다, 내가 국내에서 이러한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나가서 설명을 해야 된다 이런 것은 다 배제를 하고 그야말로 IOC 위원들을 설득할 수 있고 IOC 위원들한테 호감을 줄 수 있고 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동계올림픽이 유치될 수 있는 그러한 목적과 원칙하에서 프리젠터를 선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박선규 제가 말씀드릴까요?

○권성동 위원 예, 차관님.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박선규 지금 권성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저만 공감하는 것이 아니고 옆에 계신 조양호 위원장께서도 똑같이 생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남은 기간 동안, 남은 프리젠테이션 기간 동안에 최상의 프리젠터를 선택해서 최고의 프리젠테이션을 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성동 위원 차관님, 그 선발 문제로 인해서 국내에서 잡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조정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박선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성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우여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존경하는 박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 위원 민주당 대전 서갑의 박병석 위원입니다.

평창동계올림픽 관련해서 조양호 위원장과 차관께 묻습니다.

지난 2월 달 IOC 실사평가단에 대해서는 조 위원장이나 정부 당국 다들 노력하셔서 좋은 반영을 얻은 것에 대해서는 높은 평가를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와 경쟁하는 두 도시에 관한 실사에 관해서도 외신 반응을 보면 지난 4년 전보다는 훨씬 좋아졌다는 것은 다 알고 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박선규 예.

○박병석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평가를 내리는지 알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박선규 우선 안시에 대해서요 평가단은 공식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6월 경기장 분산에 대한 IOC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 정부가 뒤에서 적극적으로……

○박병석 위원 예, 좋습니다.

뮌헨에 관해서는 어떤 게 있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박선규 예?

○박병석 위원 뮌헨.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박선규 뮌헨에 대해

서는 이른바 반대논리가 있기는 했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올림픽 개최 여건, 기술적 사항을 평가를 하는 여러 제반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진전된 성과를 보여 줬다, 우리 요구사항을 들어 줬다는 부분을 평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석 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따르면 뮌헨의 경우는 카타리나 비트 등의 전방위적 활동 그리고 독일 정부의 강력한 지원 그리고 뮌헨 유치위원회의 뛰어난 조직력이 돋보였다 하는 평가가 있고요. 안시에 관해서도 많은 개선이 있다는 긍정적 평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평가가 상대적으로 어떤 가치를 지니는 것인지에 대한 객관적이고 냉정한 평가가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조 위원장님이나 우리 브리핑하시는 분들이 실사평가단은 유치의 한 과정이다 하는 데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우리가 지난 두 번의 실패의 경험을 보면 1차 투표에서 1위를 하고도 2차 투표에서 3표~4표로 졌던 것은 바로 IOC 위원들이 어떤 주관적 판단을 가지고 있느냐, 때로는 국력으로 때로는 개인적인 친분관계로 접근하는 것이 대단히 필요하다는 실패에 따른 귀중한 반면교사의 교훈을 얻었습니다.

잘 활용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독일 뮌헨 같은 경우는 비트의 활약이 계속 관심이 되고 평가를 받는데 우리나라는……

김연아 선수는 교섭이 끝났습니까?

○2018평창동계올림픽유치위원장 조양호 다 끝나고 이번 영국 런던스포츠어코드부터 나타날 예정입니다.

○박병석 위원 이런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김연아 선수가 우리의 상징이고 높은 상품력을 지니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자국민이 아닌 국제적인 동계올림픽 스타나 국제적인 명성을 가진 사람이 한국 평창을 위해서 뛰어 주는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2018평창동계올림픽유치위원장 조양호 전에도 외국인 선수를 쓴 것으로 알고 있고 장단점이 있지만 위원님 의견을 들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병석 위원 예, 조양호 위원장님 그간의 활동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이제 몇 개월 남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치밀한 노력을 하고 계시겠지만 이번만은 실패가 없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이 관이 할 수 있는 한계와 재계를 비롯한 민간이 할 수 있는 것, 총체적 토털 스포츠 외교력이다, 국가 간의 일종의 대결 전쟁이다 하는 그러한 인식을 갖고 계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혹시, 위원들도 의원외교를 다하고 있습니다. 해당 국가의 의원연맹 회장도 있고, 저 같은 경우도 말레이시아협회장을 맡고 있는데 이달 말쯤에 가면 IOC 위원을 만날 생각으로 있습니다. 혹시 도움이 된다면 조직위원회에서 잘 판단해서 협조를 요청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지요.

○2018평창동계올림픽유치위원장 조양호 최선을 다하고 필요할 때는 위원님한테 요청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병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우여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나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경원 위원 안녕하십니까? 나경원 위원입니다.

먼저 평창올림픽위원장이신 조양호 위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모든 위원님들께서 아마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에 대해서 정말 국민적 염원을 담아서 질의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하시고 또 인사말씀에도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IOC 위원님들 한 분 한 분에 대한 우리의 접근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분석이 끝나셨겠지만 분석을 하셔서, 우호적인지 또는 비우호적인지 중립적인지 이러한 부분에 대한 분석을 해서 우리가 중립적인 성향에 있는 분들은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접근하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역할을 하실 수 있는 분들과는 공유하는 쪽으로 널리 공유해서 하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세계 스페셜올림픽위원회 보드로서 사실상 이런 SO의 조직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IOC 위원들을 초청한다든지 이러한 부분을 같이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한번 이런 부분을 여러 방법으로 공유하시는 방법을 좀 생각해 주실 것을 부탁

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박선규 차관께 질의하겠습니다.

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 세계대회는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지만 스페셜올림픽이라는 것은 지적장애인의 올림픽으로서 '올림픽'이라는 용어를 IOC로부터 정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 세계대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니까 너무 정직하게 스페셜올림픽위원회에서 참가 규모나 이런 것을 올린 것 같습니다. 장애인올림픽이니만큼 선수, 임원뿐만 아니라 보호자들까지도 참석 인원이 참가 규모에 포함이 되어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이 생략이 되었는데요.

사실상 소요 예산에 다른 대회와 달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4 그리고 일종의 모집하는 후원금 모집이 한 6의 비율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경기의 경우에는 그 비율이 거꾸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올림픽은 어떻게 보면 국가브랜드를 올리기 위해서 또 장애인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서 굉장히 필요한 대회이니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조금 확대해 주실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2011년 예산만 해도 지금 지극히 저조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박선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나경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가브랜드를 한 단계 올릴 수 있는 의미 있는 행사라고 정부도 똑같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정부가 지원해야 할 사안이 있다면 언제라도 더 지원할 용의도 있습니다. 다만 진행되는 절차 과정에서 논의가 좀 더 많이 필요할 것이고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그리고 나 위원님 포함해서 스페셜올림픽추진위원회하고 같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모든 문제를 풀어 갈 수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나경원 위원 좀더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박선규 예.

○나경원 위원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엊그저께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조직위를 방문했었는데요, 사실상 우리의 경우에는 육상대회에 대한 관심이 좀 저조한 편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공적으로 이 대회를 마치기 위해서는 전 국민적인 관심을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구체적인 홍보 전략이 마련이 되어 있나요?

차관님께서 대답을 해 주실까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박선규 대구 말씀하시는 건가요?

○나경원 위원 예.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박선규 조금 전에 제가 보고드릴 때도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대구대회를 단순히 육상경기대회로 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종합적인 홍보의 장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이미 주 방송사 선정이 돼 있고요. 그리고 홍보 전략에 따라서 세계 각국으로까지 홍보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경원 위원 세계 각국의 관광객들이 오거나 참관인이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내에서도 좀더 많은 참관을 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 전략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박선규 예.

○나경원 위원 또 정부나 공공기관과 조직위원회와 원활한 협조가 안 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얼마 안 남은 만큼 좀더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주호영 위원님께서 먼저 가시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질의해 달라는 것을 30초 안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우여 예, 마무리해 주시지요.

○나경원 위원 대구육상대회를……

○위원장 황우여 마이크 넣어 드리고요.

○나경원 위원 보면 마라톤 코스가 있습니다. 마라톤 코스가 주호영 위원의 지역구인 수성구에 대부분 위치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왕복 2차선으로 줄어드는 부분 중에서도 특히 제대로 포장이 안 되고 더 좁아지는 구간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삼풍아파트 앞길이라 그러는데 여기에 대한 확장정비계획에 대해서 검토해 주실 것을 요

청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박선규 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우여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존경하는 최종원 위원님……

그러면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님으로 넘기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감사합니다.

모든 관심을 평창2018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서 지금 쏟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수고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와 관련해서는 국제적인 여러 가지 흐름과 또 분위기 또 현지 준비사항이 차질 없이 잘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와서 그나마 다행입니다마는 조양호 위원장님께서 그동안 온 힘을 기울여 주신 데 대해서 국회경기지원특위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를 드리고, 우리가 마지막까지 이런 열기를 늦춰서는 안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병국 장관님께서 제가 질의를 막 시작하는데 도착을 하셨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정병국 죄송합니다.

○김영진 위원 정 장관님 다선 의원이시고 정치적 경륜도 높으시고 또 오랫동안 문방위원으로 활동하시면서 위원장까지 지내시고 또 문화체육 분야에 아주 큰 경륜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경기지원특위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도 아주 기대가 큽니다.

시간이 지금 딱 5분으로 제약이 돼서 다른 말씀은 여러 동료 위원들께서 지적을 하시기 때문에 저는 다른 이야기를 좀……

상황에 대한 급박성이 하나 생겼습니다. 광주U대회는 아직 시간이 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도 알고 준비를 여유 있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FISU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공문이 그냥 일반적인 공문이 아니고 보니까 항의성, 항의성 공문이 도착을 했어요.

FISU의 대회 규정을 보면 대회기간 전에는 대회 개최지나 인근 지역에 다른 국제대회나 축제가 개최되어서는 안 된다, 이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장관께서도 파악을 하셨을 겁니다마는 FISU는 집행위원회위원장을 통해서 공식 서한을 보냈는데 국제군인스포츠대회, 이 문제와 관련해서 시정을 요구하는 공문이 지금 왔어요.

이것 지금 정부에서도 파악하고 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정병국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이것은 상당히 국제적으로, 그냥 단순한 U대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평창동계올림픽대회를 유치하는 문제라든가 앞으로 국제스포츠, 큰 대회를 우리가 유치해야 될 입장에서는 이런 문제가 올곧게 정리가 안 되면 당장 국제적인 이런 문제도 야기될 가능성이 있다, 이 문제를 어떻게 지금 판단을 하고 계십니까, 정 장관님께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정병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심각성을 저희들이 인식을 하고 이미 국방부와 실무 협의 중에 있는데 국방부에서는 적극적으로 협력을 하겠다라고 하는 의사를 보이고 있고요. 국방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세계군인체육대회가 아직 유치를 한 것이 아니고 유치 작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 문제로 인해서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라든가 또는 우리가 지금 국력을 다해서 추진하고 있는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아주 감사합니다.

우리 정 장관께서 부임하시자마자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나서셨다고 제가 확인했는데 아주 마음 든든합니다. 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도 개최가 되고 또 광주유니버시아드대회도 차질이 없이 진행되게 하는 것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해서 정 장관께서 국방부장관하고 벌써 이미 업무 협의까지 들어가셨는데 꼭 그렇게 잘 조정이 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정병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래서 이런 내용을 담은 답신을 우리가 FISU에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정병국 예.

○김영진 위원 이 문제는 그러면 그렇게 정부에서 각 부처 간에 노력을 해서 조정해 주실 것으로 믿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다 끝나갑니다마는 F1 대회와 관련해서 지금 카보(KAVO)의 지분 구조가 중간에 변경된 바람에 44%만 전라남도가 예산을 부담하는 것으로 됐다가 85.5%로 이게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어느 국제대회를 유치하는 그런 준비위원회라 할지라도 44% 지분 구조에서 85.5%로

늘어나는 이런 재정 구조에 변화가 오면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경주장 건설비 4425억 원의 17%를 부담하는 이런 문제, 굉장히 이런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국비 지원이 너무 적다, 또 기왕에 결정되어 있는 이 문제가 앞으로 6년간 계속해야 할 텐데 이런 것들이 앞으로 또 국제 사회의 신용도를 낮추는, 떨어뜨리는 문제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F1 경주장 추가 건설비로 108억 원, 그리고 올해 대회 운영비로 117억 원 정도를 지금 요청을 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정 장관님께서 적극적인 검토를 좀 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정병국 예, 알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우여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규 위원 대구 북구갑 출신 이명규 위원입니다.

장관님께 좀 묻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정병국 예.

○이명규 위원 지금 다른 대회는 아직까지 시간이 많이 남았습니다마는 세계육상선수권대회는 이제 다섯 달 남았습니다. 다섯 달이 남았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홍보 내지는 관심도 다른 외국 지역 사람들이 세계육상선수권에 대한 관심도 떨어지고 또 국내도 떨어지고 이 문제가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역시 관중 동원 문제하고도 같이 연계된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문광부에서는 말은 아까 차관 말씀이 육상뿐만 아니라 관광과 어우러지는 그런 행사가 되어야 된다, 말은 참 잘하네요. 제가 보기에는 아주 그럴싸하게 하는데 별로 거기에 대한 진정한 노력이, 진정성이 별로 엿보이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조직위원회에서 지금 건의를 드리는 게 뭔가 하면 중앙정부 차원의 매머드급 이벤트와 광고 방송의 적극적 추진을 건의한다, 결국 우리 국민들의 관심을 좀 제고시켜 달라, 정부 차원에서 좀 관심을 제고시켜 달라 이런 얘기지요. 조직위원회에서 홍보물 만들어 가지고 중앙 언론을 통해 가지고 내 봐야 한계가 있으니까 정부 차원에서 세계선수권대회를 좀 홍보해 달라 이런 얘기인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정병국 제가 이 부분을 보고를 받고 저도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취임을 하자마자 동계올림픽 실사 문제 때문에 거기에 전력을 하다 보니까 아직 여기까진 제가 미처 다 현장을 내려가 보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현장에 내려가서 준비된 상황을 점검하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어떻게 해서 이것을 홍보를 해 내고 성공된 대회로 치를 것인가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서 바로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규 위원 장관님 고맙습니다.

하여튼 장관님 말씀을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한 가지 부탁만 드린다면 이 매머드급 이벤트하고 광고 방송이라는 것은 국내를 대상으로 하는 건데 국내만 대상으로 하지 말고 일본이나 중국을 비롯한 해외에도 이 홍보 활동을 정부 차원에서 좀 해 주시면 좋겠다 그 부탁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정병국 예,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이명규 위원 그리고 조직위원회사무총장님, 문동후 총장님께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고서 20페이지 보니까 입장권 판매가 현재 20만 매, 44% 되어 있다고 그랬지요?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부위원장 문동후 예.

○이명규 위원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부위원장 문동후 예, 맞습니다.

○이명규 위원 통상적으로 대회가 5개월 남으면 이 정도 입장권 판매를 하게 되면 잘 하는 겁니까, 못 하는 겁니까?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부위원장 문동후 이 정도면 오사카 수준보다는 높은 것이고요, 오사카 2007년 수준보다는 높은 것이고 그러니까 독일 베를린 수준하고 비슷합니다, 통계상으로는.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우리가 20만 매 중에 12만 매가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그 대상으로 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 나머지를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판매된 건 한 7만 매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명규 위원 제가 참 걱정되는 게 말이지요, 그 밑에 보니까 만석 경기장 실현을 위해서 대학생 홍보단 경기 관람하고 초·중·고등학생 현장 체험학습 한다 이랬는데 이게 까딱하면 세계육상선수권대회가 초·중·고등학생들 육상선수권대회밖에 안 되겠어요.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시는 것 아니냐, 지금 12만 명 중에…… 몇 만 명이라고 그랬습니까? 초·중·고등학생 12만 명?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부위원장 문동후 예, 한 12만 명이 지금 그……

○이명규 위원 그러니까 20만 매 팔았는데 12만 매를 초·중·고등학생한테 판다는 게 말이 됩니까?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손쉽게 그냥 그냥 가려고 하는 게 아니냐, 성인 대회에 성인들이 꽉 차야지 어린애들만 바글바글하는 그런 세계…… 이게 까닥하면 국가적인 망신당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성인에게 이 표를 소화시킬 연구는 안하고 초·중·고등학생들 그냥 현장 체험학습 하겠다는 이런 식으로 가는 건 이건 아니다,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보세요?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부위원장 문동후 그 부분이 지금 초·중·고등학교 학생은 12만 매가 지금 저희가 맥시멈으로 잡은 겁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부분은 대학생, 그리고 서포터즈 그러니까 일반 성인들을 위해서 판매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명규 위원 시간이 다 되어서 더 안 묻겠습니다마는 우리 조직위원회 측에서도 너무 안이하게 생각을 하시는 것……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같네요. 애들한테 표 파는 것 12만 매 하면 엄청 많은 것 아닙니까? 3명 중에 1명이 어린애입니다.

하여튼 다시 한번 재고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우여 지금 마이크가 꺼져서 그러는데 학생들한테 12만 명 표를 판다는 것은 다른 위원님들 생각에도 무리가 있고 또 성격상으로도 좀…… 외국에도 그런 예가 있습니까? 국제대회인데……

그래서 그 부분을 이명규 위원님 지적하신 것을 잘 깊이 생각하시고 받아들이셨으면 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원 위원 민주당 최종원입니다.

위원장님, 지금 국제경기대회개최및유치지원특별위원회라고 되어 있는데요 거기 위원장님 아니십니까?

○위원장 황우여 예.

○최종원 위원 그런데 여기서 '개최 및' 했는데 남이 다 따온 것 지원만 하는 겁니까, 이 특별위원회는?

○위원장 황우여 위원장으로서 대답해야 될 일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예에 의하면 유치도 우리가 앞장서서 정부와 의논하고 또 활동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 군인올림픽 같은 것을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종원 위원 위원장님 지금 말씀하신 시간은 빼 주세요.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에는 대구육상경기 사무총장님 나와 계시지요?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부위원장 문동후 예.

○최종원 위원 제가 딱 한 가지 묻고 싶은데 국제대회 메달 포상금, 기록 포상금 확대 실시인데 금메달 10억 원, 은메달 5억 원, 동메달 2억 원, 4위 5위 6위 5000 3000 2000 1000만 원, 지도자 5억, 2.5억 이게 이번에 세계육상경기대회에서 금메달 딴 사람 얘기하는 것이지요?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부위원장 문동후 예, 세계국제 이번 육상선수권……

○최종원 위원 그것 우리나라 선수가 금메달 딸 수 있는 확률은 몇……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부위원장 문동후 우리나라 선수가 딸 경우에 우리나라 선수한테 준다는 겁니다.

○최종원 위원 그러면 외국 선수는요?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부위원장 문동후 외국 선수는 이게 해당이 안 됩니다.

○최종원 위원 해당이 안 됩니까? 그게 지금 우리나라 선수가 세계육상대회에서 금메달 딸 선수

가 있습니까? 딴 예도 없잖아요, 마라톤 제외하고는?

그런데 이렇게 이것 뭐 그냥 부풀리기 작전하는 건지 간땡이 붓게 하는 건지 이해가 안 갑니다.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부위원장 문동후 그 부분을 그 정책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상당한 시간과 또 관련 기관 협의를 다 거쳐서 만든 겁니다.

○최종원 위원 글쎄요, 만들었겠지만 지금 현재 세계육상경기대회 하시는 분들이 그러면 한국에 우리 선수들의 층도 생각하셔야지요. 아니면 아니고 그런 거지 뭘 그렇게 자꾸 하세요.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부위원장 문동후 아니, 이번 세계육상선수권대회뿐만이 아니고요,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도 같은 포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최종원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여러 가지 F1, 제 지역구인 평창까지 동계올림픽으로 들어와 있는데 이 모든 문제가 아시안경기대회 포함해서 지자체장의 욕심으로 개인적 이익을 위해서 유치하는 이런 부분을 국회 특별위원회에서 제도적으로 장치를 만들든가 아니면 문광부에서 신청서를 받아서 엄격한 심사를 해서 '오케이, 이것 하자' 이래서 지자체하고 정부가 같이 어우러지든가 이것 전부 수천억, 수백 억 다 드는 이것 막상 따왔습니다. 따온 과정은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할 얘기가 있고.

그런데 지자체 욕심으로 해서 장의 욕심으로 따왔다, 만약 김진선 강원 전 지사가 평창 동계올림픽을 처음부터 따왔다면 대권 후보로 들었을 것입니다, 그 사람도 욕심이 있었고.

이런 식의 유치 작전이 막무가내로 이루어진다면 따왔으니까 할 수 없이 열 수밖에 없고 세계적 망신이니까 지원할 수밖에 없고 이런 측면이라면 이것은 곤란하다 엄중히 정말 제대로 심사를 해서 안 되면 냉정하게 안 되고 된다면 여기에 경제 유발효과 뭐 이런 것 전부 거짓말 아닙니까? 피부에 와 닿습니까, 6조 2조 이런 게? G20 정상회의 경제 유발효과 30조라고 그랬습니다. 국민들이 와 닿습니까, 30조면? 국가 예산에서 10분의 1인데……

이렇게 국제경기 유치하면서 막무가내로 뻥튀기 식으로 하지 말고 정말로 이 지역민들, 지역의 경제 발전, 지역의 발전, 국가적 제고, 여러 가지 상황에서 정말 이것은 필연적으로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해야지 당선되면 덮어 놓고 지자체장들이 자기 이익, 자기 치적을 위해서 막 유치해 놓고 정부에 돈 달라 이런 식이면 좀 곤란하지 않겠느냐, 그것은 장관께서 정말 좀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끔, 유치를 해 왔는데 어떻게 유치해 왔느냐 과정도 소상히 살피시고 평창동계올림픽 첫 번, 두 번 다 실패했는데 그때 유치를 위해서 하면서 들어간 돈의 결산 문제는 어떻게 됐느냐 하는 문제까지도 소상히 장관께서는 아셔야 되지 않겠느냐, 감사를 하든? 두 번 유치 실패하고 김진선 지사의 잘못으로 인해서 강원도는 빚더미에 올라 앉아 있는 상황입니다. 해결이 안 되는 지점입니다. 9000억 누가 국가에서 만들어 주겠습니까, 빚 갚으라고?

이러고 떠나면 그만인 이런 국제경기 유치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젠 어쩔 수 없이 평창은 두 번 도전하면서 준비해 놓은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어쩔 수 없이 하긴 해야 됩니다. 유치를 해야 되고 절실합니다. 안 그러면 강원도는 망하는데 이런 쓸데없는 개인의 욕심 때문에 유치하는 그런 짓은 앞으로 하지 말기를 제가 지자체장들 여기 계실지 모르지만 간곡히 부탁드리고 장관께서도 좀 철저한 검사를 하시든지 조사를 하시든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정병국 최종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나 방향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하면서 국제스포츠경기를 유치를 해서, 과거의 우리 역사를 되돌아보면 88올림픽이라든지 두 번의 아시안게임 그리고 2002년도 세계월드컵대회 등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데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민적 총의를 모을 수 있는 좋은 계기도 됐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지자체 중심으로 해서 좀 어떤 측면에서는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대로 처음에 유치할 때 지자체의 약속하고 틀리게 유치를 해 놓고 모든 것을 중앙정부에 넘기는 이런 방식은 이제는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런 국제경기대회를 유치를 하는 데 중앙정부에서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보고 또 그런 것을 다 고려해서 승인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

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유치를 해 놓고 치러야 될 경기만 하더라도 처음 유치할 당시의 지자체와 중앙정부와의 약속이 다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유치된 경기는 어느 지자체가 유치를 했든 간에 그 지자체의 대회만으로 생각하지는 않겠습니다. 일단은 대한민국이 치르는 것인 만큼 대한민국 중앙정부가 책임을 지고 성공리에 치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대로 더 이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남발이 되지 않도록 엄격하게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또 분석을 하고 그래서 승인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원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우여 좋은 말씀들을 나누셨습니다. 그러나 하여간 평창은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실 것을, 최 위원님이나 저희들 다 그런 취지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학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재 위원 이정호 지원본부장님 좀 나오시지요.

나오시는 동안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아시안게임 주경기장이 2009년 1월에는 국고 지원 없는 민자유치와 주변지역 개발이익으로 건설하자고 합의가 됐다가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문학경기장 리모델링까지 검토를 하고 결국에는 2010년 11월에 사업계획 변경으로 민자를 재정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변경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2011년 2월 달에 다시 인천시가 주경기장을 국비 지원 없이 하겠다고 문화체육관광부로 공문을 보낸 상태인데 국비 지원 없이 인천시 재정사업으로 가능합니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인천광역시대회지원본부장 이정호 국비 지원 없이, 현 모든 경기장이 지금 국비 30%를 받고 있지만 상당히 재정적으로 어렵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차피 주경기장을 짓는 입장에서 국비를 좀 받았으면 하는 희망이 간절합니다.

○이학재 위원 그런데 왜 신청을 국비 지원 없이 하겠다고 다시 공문을 보냈나요?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인천광역시대회지원본부장 이정호 부분은 저희가 희망사항을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최초에 주경기장 지을 때부터 민자 없이 국고 보조…… 민자로 해서 국고보조를 못 주겠다는 그런 정부의 입장과 상반되기 때문에 계속 정부에서는 줄 수 없다, 그런데 저희가 마침 또 주경기장이 절대공기가 37개월인데 이번 3월 달에 승인이 안 나면 공기를 맞출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고 또 정부에서도 기재부에서 협조를 받다 보니까 국비를 받게 되면 예타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전제를 뒀기 때문에 예타를 주면 또 한 4, 5개월 또 늦어집니다. 그래서 승인이 늦어지기 때문에 공기를 맞출 수가 없어서 저희가 일단 국비 요청을 철회했습니다.

○이학재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인천시에다가는 이렇게 충분한 검토 없이 민자사업으로 전환한다든지 아니면 당초 주변지역 개발사업을 통해서, 그 개발이익을 통해서 하려고 했었던 선수촌 미디어촌의 사업 변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중앙정부하고 충분히 협의하지 않고 결정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천시에다가는 지적을 하고요.

그 대신에 지금 지원본부장 말씀대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이게 또 절대공기가 어차피 필요한데 이것을 사업 변경을 안 하다 보면 절대공기를 못 맞춘다는 어떻게 보면 아주 결정적인 이쪽의 약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국비를 포기해야 되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는 장관님께서도 금방 말씀하신 대로 국제경기가 인천시 특정 지자체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 국비지원에 대해서는 반드시 재검토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간단하게 한 말씀 해 주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정병국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정부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하든 간에 성공적인 대회를 치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그 지원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보고드린 대로 또 절차를 밟게 되면 현실적으로 예산을 지원을 한다 하더라도 공기를 맞추는 문제가 있고 고육지책으로 인천시도 이런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라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학재 위원 하여튼 국비지원과 관련되어서는 차후에 잘 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정병국 앞으로 다른 분야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학재 위원 그리고 제가 금방 말씀드렸던 선

수촌, 미디어촌의 개발이익을 가지고 주경기장을 건설하는 데 사용하려고 하다가 선수촌, 미디어촌을 보금자리주택 부지로 바꾸면서 해당 지역의 토지주들의 문제가 심각하게 됐습니다. 보상이 곧 나올 줄 알고 대토를 했던 분들의 이자부담이라든지 또…… 거기가 보상이 나올 곳이니까 대부분 시설원예를 하는 분들인데 이 시설원예에 자금 지원을 3년 동안, 그동안에 안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농사가 망해 가는데 지금 보상을 안 하겠다고 하니까 이분들이 지금 오갈 데 없는 그런 사정인데……

지금 또 올해 농사를 시작해야 되는데 아직도 행정적으로는 거기가 선수촌 미디어촌 부지이기 때문에 아직도 농업시설 지원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인천시에서는, 3년 동안 이러고 있는데 그 농가들이 지금 얼마나 딱합니까? 그래서 이 농가들에 대한 그동안의 피해라든지 그것을 보상할 수 있는 체계적인 방안을 수립을 해 주시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님께서는 행정적인 절차를 또 다 밟다 보면—지금 한 두 단계 정도를 밟은 것 같습니다—그러다 보면 한 4월 중순 되어서 올해 농사도 또 망치게 생겼으니까 이것이 인천시에서 확실히 선수촌 미디어촌을 변경하는 것이 확인이 되면 나머지 행정절차 이전에라도 이분들의 예정 부지를 취소시켜 가지고 정상적으로 농업행위도 하고 지원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적인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정병국 예, 저희가 좀 파악을 해 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른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행정적인 절차로 인한 농가의 또 다른 피해가 오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학재 위원 지원본부장님도 시에서……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인천광역시대회지원본부장 이정호 지금 먼저 1차 조사를 시켰습니다마는 미흡한 점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또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우여 주경기장이 이학재 위원님 지역이시지요?

○이학재 위원 예.

○위원장 황우여 그래서 그 주경기장계획이 미디어촌하고 선수촌하고 삼각관계가 승인 당시와 달라짐으로써 아마 전체적인 구조가 변경이 되고 또 그에 따른 예산의 배정 문제 또 토지 사용 문제 이런 것이 얽혀있는 것 같으니까 문광부에서 좀 관심을 갖고 말끔히 정리를 해 주셔야 시와의 관계 또 지역민심이 정리될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해 주셨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노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민 위원 먼저 장관님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정병국 예.

○노영민 위원 작년에 F1 그랑프리대회를 보면서 사실 장관님이나 저나 많은 분들께서 느끼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통, 숙박, 마케팅 뭐 하나 제대로 된 게 없었습니다. 사실 좀 부끄러웠지요. 물론 첫해였고 또 일기도 좋지 않았고 그런 것이 있었지만 작년 같은 운영이라면 솔직히 이제라도 좀 중단하라고 하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이게 또 예산도 보통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소요예산이. 개최권료, 카보(KAVO) 운영비까지 하면 거의 조 단위로 들어가는 그러한 대회인데 장관님께서 이 조직위원회에 대해서 따끔하게 한번 들여다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정병국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제가 장관에 임용이 되기 이전에 문화체육광부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똑같이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많은 문제를 제기했던 사람입니다.

참 안타까운 현상인데요. 처음부터 너무 무리하게 출발을 했고 그래서 저는 처음 출발할 때부터 준비되어 있지 않은 출발은 더 큰 화를 불러일으킨다 하는 문제 제기도 했던 사람입니다마는 이제는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무리하게 출발을 했지만 새로운 스포츠의 영역을 우리나라에 소개를 하고 또 새로운 장을 열고 또 이것이 제대로 된다라고 하면 다른 나라에서와 같이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이기 때문에 어차피 시작된 것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고 어떻게 지원을 해서 효율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이 정착을 할 수 있고 소기의 그러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종합점검을 해 가지고 다음 기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영민 위원 이연택 조직위원장님, 지난번 광저우아시안게임 개막식을 보면서 아마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느꼈을 것 같아요. 독창성, 스케일

모든 것을 보면서 참 오늘 날 중국을 웅변하는 것 같은 그런 충격을 느꼈거든요. 그것을 보면서 인천아시안게임조직위가 대회목표를 실용적으로 수정을 했다, 광저우대회에서 얻은 교훈과 시사점을 반영해서 실용적으로 대회목표를 수정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이것은 우리 내부의 요구이기도 하고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이것이 실용적이면서도 어떻게 감동을 줄 수 있느냐, 결국 이게 핵심 아니겠습니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장 이연택 그렇습니다.

○노영민 위원 제가 보기에 너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결국은 광저우에서의 어떤 독창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비교가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당시에 모든 아시아인들이 충격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결국 우리의 독창성 그러면서도 감동 그러면서도 또 실용적으로 해야 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광저우아시안게임의 대회 운영이 그렇게 매끄러웠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결국은 개막식 행사 하나로 광저우아시안게임이 오래도록 기억에 남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장 이연택 중국의 이 개막행사는 역시 중국 대국의 위용을 내외에 과시하는 이런 면에서 큰 관심을 끌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들 입장에서는 아시안게임은 자국의 어떤 권위나 역량을 과시하는 이러한 대회보다는 앞으로는 40억 아시아인 그리고 45개 아시아 국가 모두의 하나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그 관점을 이제는 자기과시보다는 모두에게 감동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이런 방향에서, 그리고 또 모두에게 너무 큰 부담을 남겨 주는 이러한 것보다는 아주 함께 즐기고 나누는 이러한 대회로서의 성공의 모델을 우리 인천에서는 그런 방향에서 성공적인 감동의 모델을 찾겠습니다.

○노영민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조양호 조직위원장님, 사실 이번 7월 6일 더반에서 결정되는 게 세 번째인데요, 삼수인데요. 사실 우리 국민처럼 이런 국민적 지지가 높은 나라는 없을 겁니다. 중앙정부의 지원도 이렇게 확실하게 해 주는 나라도 없을 것이거든요.

그런데 명분은 기본이고 뿐만 아니라 이게 IOC 위원들 개개인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서 결정되는 가장 은밀한 외교가 이 올림픽 유치인데 최근에 보면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내에 활강코스를 건설하는 문제 때문에 좀 약간의 말이 나와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은 나중에 특별법을 통해서 어떻게 해결한다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주무부처인 산림청과 기본적인 대화나 정보 공유는 하고서 이게 유치 서류에 내는 게 좋지 거기에다가 물어보면 강원도나 평창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로부터 '가리왕산 중봉 일대 개발에 대해서 공식 협조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 이런 말이 나오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좀 내부적으로 이런 말이 안 나오도록 환경올림픽 하겠다고 그렇게 지금 강조하고 있는데 내부적으로 이런 말이 나오면 좀 안 좋거든요. 앞으로 하실 때 유념 좀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유치위원장 조양호 예, 알겠습니다.

○노영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우여 노영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정병국 제가 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가리왕산 문제는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인 절차는 밟지 않았지만 용역을 했고요. 원래는 처음에 이 문제가 나왔던 것은 가리왕산 정상에다가 지난번 유치를 하려고 할 때는 가리왕산 정상으로부터 활강코스를 만들려고 했다가 그 정상 부근에 주목단지가 있고 천연기념물이 많이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보존을 해야 될 수종들이 많다고 해서 그때 그 문제 제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찾은 결과 8부 능선, 지금 중봉이라고 하는 산줄기로부터 다시 시작을 하게 되면 이러한 자연 보호수라든가 이러한 문제가 없다 하는 기본적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위치 변경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진행이 됐고 이 문제는 이번 실사단 과정에서도 전혀 문제 제기가 없었고 심지어는 강원도의 과거에 반대를 했던 환경단체조차도 현장에 와서 찬성한다 하는 의견까지 개진을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황우여 조양호 위원장님도 같은 인식이십니까?

○2018평창동계올림픽유치위원장 조양호 예, 저번 실사할 때 조사를 해서 같은 결론이 나왔었습니다.

○위원장 황우여 그러면 노영민 위원님도 그 답변을……

○노영민 위원 그러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정병국 철저하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노영민 위원 그것 하실 때 주무부처하고 상의를 하셔 가지고, 이게 허가권을 산림청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정병국 예.

○노영민 위원 산림청에서는 상의받은 적이 없다라고 기자한테 답변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정병국 알겠습니다.

○노영민 위원 내부에서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황우여 산림청과 우리 장관께서 한번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시고 정리를 해 주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정병국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우여 존경하는 장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張倫碩 委員 정병국 장관님 오랜만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정병국 예.

○張倫碩 委員 장관 잘 하신다는 소문은 들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정병국 감사합니다.

○張倫碩 委員 국회의원 하시면서 3선 11년간 문화관광체육위원회의 일을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정병국 예, 맞습니다.

○張倫碩 委員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

다른 대회도 있습니다마는 평창 유치가 지금 문화체육장관한테 주어진 가장 큰 과제 중에 하나 같아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정병국 예, 그렇습니다.

○張倫碩 委員 지금 어떻습니까? 비책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정병국 지금 결국은 IOC 위원들의 마음을 움직여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낙관도 비관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하나하나 단계별로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투여를 해서 실수 없이 그 관문을 통과를 하고 마지막 관문을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張倫碩 委員 국민의 염원이니만큼 업적을 잘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삼세판이다' 이런 말 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정병국 예.

○張倫碩 委員 어릴 때 우리 노래하면서 '삼세판이다' 이런 말 얘기했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정병국 예.

○張倫碩 委員 하여튼 세 번에 꼭 겨루어서 승부를 내자…… 평창이 지금 꼭 삼세판의 지경에 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삼세판의 결론, 결과가 꼭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문동후 부위원장님.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부위원장 문동후 예.

○張倫碩 委員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준비가 잘 되고 있습니까?

아까 경기 관람권 때문에 지적이 있었는데 그 부분도 사실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지적을 하려고 준비를 해 왔습니다마는 학생들만 모아 놓아 가지고는…… 그게 전국에, 전국이 아니라 세계에 중계가 될 것 아닙니까, 이 관중석이?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떤 다른 대책을 좀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부위원장 문동후 사실 아까 이명규 위원님도 같은 것을 지적을 하셨는데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것은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다만 저희가 이게 초·중·고등학교, 초등학교가 아니고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단순히 이 대회가 그러니까 대회도 대회지만 교육의 장으로서 굉장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학교 교장선생님부터 선생님들하고 인솔하에 와 가지고 관람하도록 하고 또 학부모들이 같이 와서 하도록 하는 이런 방법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중인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張倫碩 委員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동후 부위원장님은 제가 알기로 행정부에 오랫동안 고위직으로 계시다가 국제경기 분야에 투신을 했는데 몇 년 됐습니까, 이 국제경기 업무에 투신한 게?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부위원장 문동후 제가 1983년도에 서울올림픽조직위원회에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30년 가까이 된 것 같습니다.

○張倫碩 委員 그러면 여러 전문가들이 많이 계시지만 그래도 국내의 국제경기 유치라든지 운영이라든지 또 지원이라든지 여기에 관해서 가장 오랜 경험 경륜을 가지고 있는 분이다 이렇게 생

각을 합니다.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는 잘 아시는 대로 세계 3대 경기대회가 아닙니까? 잘 아시는 대로 올림픽·월드컵·세계육상선수권대회 이 3대 국제경기대회를 유치한 나라가 세계에서 몇 나라가 됩니까?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부위원장 문동후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7개국입니다.

○張倫碩 委員 그렇지요. 우리가 일곱 번째 트리플 크라운 국가가 됐다고 이렇게 자랑스럽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 대회가 정말 자랑스러운 대회가 돼야 될 겁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잘 해 주시는데 제가 이런 아이디어를 하나 드릴게요. 대구시가 한해 벌이는 축제가 24개가 있습니다. 이게 계절에 따라서 아마 1년 연중 전개는 될 거예요. 그렇기는 하지만 그 축제 주관자들하고 잘 협의를 해서 이 축제가 대구육상선수권대회 기간과 전후에 또는 그 중에 이렇게 연계가 되면 그 축제와 대구육상선수권대회를 함께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또 대구 축제뿐만 아니라 인근지역 또 지금 지역축제가 왕성하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한번 협의나 검토해 보신 일은 있나요, 대구시하고?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부위원장 문동후 대구시하고 그 부분은 지금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고요. 인근의 경우에는 경주엑스포하고 저희하고 지금……

○張倫碩 委員 하고 있습니까?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부위원장 문동후 협력적 관계를 유지를 하는 식으로 해서 지금 연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張倫碩 委員 조양호 위원장님, 아까 보고는 받았습니다마는 실사평가는 성공적이었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IOC 위원들의 투표로 결정되는 사안이니만큼 IOC 윤리규범에 위배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많은 표를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2018평창동계올림픽유치위원장 조양호 지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개개인별로 접근을 해서……

○張倫碩 委員 설득을 시키고……

○2018평창동계올림픽유치위원장 조양호 설득을 시키고 있습니다.

○張倫碩 委員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우여 장윤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신학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학용 위원 신학용 위원입니다.

이연택 인천아시안게임 조직위원장님, 지금 대회 준비는 벌써 3년째니까 차질 없이 잘 되고 있지요?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장 이연택 예, 그렇습니다.

○신학용 위원 문제는 아마 시설 문제 때문에 가장 골치 아픈 거지요?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장 이연택 예, 그렇습니다.

○신학용 위원 정병국 장관님, 축하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정병국 감사합니다.

○신학용 위원 이렇게 마주앉아서 하는 게 처음인데요.

죄송합니다, 한번…… 이번에 인천 2014년 아시안게임 주경기장을 포함한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시설 사업계획변경을 늦게 냈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정병국 예, 그렇습니다.

○신학용 위원 왜 이렇게…… 만들려면 공기도 있는데 빠듯하게 이렇게 낸 그 사연은 아마 아시겠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정병국 예, 처음 계획했던 것하고 그게 여러 차례 계획이 변경이 되면서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학용 위원 솔직히 저도 첫 국제경기특위가 국회에 생길 때부터 아시안게임 때문에 유치전부터 해 가지고 또 준비상황까지 지금까지 한 5년 동안 해 오고 있는데 저는 그 당시 장밋빛계획에 따라서 제가 할 일은 어떻게 하면 도와주는 거냐, 저는 집행권이 있기 때문에, 비판은 또 시의회에서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도와주려고 최선을 다했는데 어쨌든 이번에 또 시장이 새롭게 출발하고 보니까 아시다시피 거의 다 부동산이 활성화됐을 경우를 대비해 가지고 거기의 이익금으로서 충당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활성화되기는커녕 이제 후퇴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되지 않습니다.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계획대로 다 해 왔는데 안 되니까 이리도 굴려보고 저리도 굴려보고 시장이 저기 쿠웨이트 뛰어가 가지고 '이것 이렇게 해도 될 수 있겠느냐' 또는 '규모 더 줄여도 되겠느냐' 이런 과정을 아마 잘 아실 겁

니다.

그러니까 저는 더 안타깝고 솔직히 민자 유치해 가지고 하면 그 경기장 상업용으로 많이 지어야 되니까 덩치만 크고 그것 장사하는 데 여념이 없는 그런 운동장 필요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솔직히. 울며 겨자 먹기로 그때도 민자로 한 겁니다, 허가가 잘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것 다 해 주고 아까 성공적인 대회를 위해서 끝까지 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이번 3월 말까지 안 해 주면 정말 큰일 납니다. 꼭 좀 해 주시고요.

거기에 컨벤션센터를 미디어센터로 쓴다고 그럽니다. 여기까지 같이 이번에 필수시설로 해 가지고 아마 장관님 이것은 하여튼 어느 것보다도 먼저 3월 말까지 해 주지 않으면 이제부터는 정치적인 문제부터 해 가지고 모든 게 구도가 달라지면 인천이 복잡해집니다, 이것은 정말. 책임 문제가 나올 거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또 합시다. 일단 해 놓고 그다음에 아까 말했지만 국비 지원 여부…… 또 저도 계속 주장할 겁니다, 나름대로의 논리대로.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사업계획변경안에 대해서 현재까지는 정부에서도 손해가 없고 이것은 꼭 해야 되겠다 하면 정말 해 주시기를 정말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정병국 알겠습니다.

○신학용 위원 감사드리고요.

설명하려면 너무 깁니다. 너무 길기 때문에 저도 안 하겠고요.

조양호 위원장님, 그동안 고생 많으시고요.

이게 이제 세 번째 도전인데 부담 많이 되시지요?

○2018평창동계올림픽유치위원장 조양호 예, 많이 되고 있습니다.

○신학용 위원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을 보고 부담은 많이 되시겠지만 우리 이번에 또 평창이 안 되면 강원도민들도 그야말로 너무 낙담하실 거고 또 우리의 국위 위상에도 우리 국력도 이것밖에 안 되느냐라는 그런 우리 국민에게 실망감을 많이 줄 것 같아요.

그 대신 이것을 꼭 유치해 오신다면 나름대로 한국 체육계의 큰 인물로, 지금도 한국 체육계에 많은 역할을 하시지만 큰 인물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좀더 시간도 많이 내시고 또 자금도 많이 푸셔 가지고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유치위원장 조양호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학용 위원 현재 위원장께서 예측하고 계신 가능성은 적어도 한 51%는 됩니까?

○2018평창동계올림픽유치위원장 조양호 지금 아까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낙관도 비관도 하지 않고 그냥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신학용 위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장관님께 부탁드립니다.

오죽 답답하면 저 이때까지 인천시 일에 대해서는, 정말입니다, 전임 한나라당 안상수 시장님이 계실 때 저는 행위에 대해서 절대 비판 안 했습니다. 왜? 그것은 인천시의원들이 할 거고 또 인천시민들이 나중에 판단해 줄 거니까. 그렇지만 도와달라는 것은 최선을 다해 도와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이제 장관께서는 좀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번에 이것은. 야당 송영길 시장이 시장 됐다 해 가지고 이것을 정치적으로 절대 좌우하지 마시고 있는 현실을 좀 봐 주시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일단 공사 시작하게 해 놓고 그다음에 또 싸웁시다. 그때는 또 싸울 때는 싸우더라도 이번만큼은 꼭 그것 확답 듣고 싶습니다, 이 자리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정병국 신학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2014년 아시안게임이 인천시만의 대회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신학용 위원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정병국 일단은 인천시에서 개최를 하지만 대한민국이 개최를 하는 거고 또 그것은 아시아인의 축제입니다. 또 우리나라를 벗어나서 밖에 나가면 송영길 시장님이 야당인지 여당인지 모릅니다. 그것 따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이것은 분명히 중앙정부에서도 성공한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입견을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신학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3월 말까지 해 주시겠다는 대답은 안 해 주시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정병국 이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하되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바로 제가 책임을 져서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면 제가 책임을 져서라도 시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학용 위원 해병대 출신이니까 약속 지킬 겁니다.

○위원장 황우여 지금 주경기장 계획이 변경됨으로써 미디어센터하고 선수촌이 삼각관계로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한꺼번에 해서 시민들에게 확답을 주시고 또 시장으로 하여금 일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도록 하고 또 아니면 사전에 조정을 잘 해 주셔야지 마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에 대립이 있는 것으로 자꾸 언론에 보도가 되니까 신학용 위원님이 지금 안타까워서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정병국 이 문제는 지금까지 저희에게 협조를 해 가지고 안됐거나 제가 이 부분에 진행을 하는 데에서 이것은 이래서 안 된다라고 해 본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종합적으로 저희한테 넘어온 것이 아직 없습니다.

○위원장 황우여 맞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정병국 그래서 이게 넘어오게 되면 바로, 넘어오기 전에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제가 필요하면 인천에라도 내려가서 현장점검을 하고 종합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저희들이 한번 종합검토를 해서 처리할 것은 빨리 빨리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우여 지금 장관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한번 인천에 오셔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정병국 예, 가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우여 ‘현장에서 다 올라와라’ 이러시지 말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정병국 예, 가겠습니다.

○위원장 황우여 현장에서 진두지휘하시면 시민들이 ‘아, 중앙정부가 와서 챙기는구나’ 하는 안도감을 줄 걸로 압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정병국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우여 아주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신학용 위원 제가 수행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우여 다음은 존경하는 윤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상일 위원 안녕하세요, 장관님.

뒤늦게나마 취임을 축하드리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정병국 감사합니다.

○윤상일 위원 지난번에 실사단이 한국에 왔을 때 실사단과 함께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마음 뿌듯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평창동계올림픽은 범국가적으로 굉장히 관심이 많고 또한 의미가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관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번 월드컵 유치가 실패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정병국 예.

○윤상일 위원 그래 가지고 일부 국민들은 실망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정말 평창동계올림픽을 유치해서 국민에게 활력을 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장관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번이 세 번째 도전입니다. 지금 우리 상대국가인 프랑스의 안시하고 독일의 뮌헨 그리고 우리나라 평창 이 3개 도시가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데 이번 실사단에서 굉장히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다라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평창의 가장 장점이 있다면 뭐라고 보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정병국 우선은 두 번의 실패가 있었지만 단순한 실패로 저희들이 치부를 하지 않고 그동안 꾸준하게 우선 동계스포츠 종목에서 쇼트트랙 위주로 메달을 따던 것을 경기력 향상을 시켜 가지고 스피드스케이팅, 피겨스케이팅, 심지어는 설상 종목까지도 좋은 성적을 내는 것 자체가 전 세계 IOC 위원들에게, 스포츠인들에게 한국의 의지를 그것 자체가 저는 표시를 했다라고 보고요, 또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8년 전부터 저희가 초기에 유치를 할 때도 이 자체는, 평창에서 동계올림픽을 유치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유치를 하는 게 아니라 아시아가 유치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동안 동계스포츠 종목으로부터 소외됐던 지역이 함께, 코리아가 허브가 돼서 함께 동계스포츠 종목을 확산하고 확대하는 데 일익을 담당하겠다라고 해서 드림프로그램이라고 해 가지고 그때부터 동계스포츠 종목을 접하지 못하는 나라들을 초청해 가지고 지금까지 930여 명을 저희들이 연수를 시켜 가지고 보냈습니다. 그중에서 지난 밴쿠버 올림픽 때는 8명의 국가대표, 그 나라 국가대표선수들이 배출되기도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평가단도 높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어떤 나라하고 비교를 해서도 우리가 13개 경기장 중에서 7개는 이미 완성됐고 가장 콤팩트하게 준비를 잘하고 있는 나라이고 또 국민적 열망이 가장 높고 또 중앙정부에서 대통령을 비롯해서 국무총리, 각부 장·차관까지 PT 현장에 내려와서 직접 답을 할 정도로 중앙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표시했다는 것 그 자체가 우리의 장점입니다.

○윤상일 위원 지금 장관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선수가 각 종목의 경기력이 향상됐다 그리고 그 동안에 늘 유럽지역하고 북미에서만 개최가 됐는데 우리 동양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강점을 가지고 있다, 세 번째로 거기에 걸맞은 프로그램을 계속 해 왔기 때문에, 아울러 국민의 열망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이런 말씀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정병국 예, 그렇습니다.

○윤상일 위원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장관님께서 조양호 위원장님과 함께 더불어서 꼭 유치를 하셔 가지고 대한민국에 좋은 활력소가 될 수 있게끔 꼭 유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정병국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윤상일 위원 그리고 늘 문제가, 국제경기대회를 유치하고 나게 되면 항상 문제가 되는 게 있잖습니까? 시설 유지 내지는 관리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부분 적자가 나는 것은 장관님께서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특히 강원도 알펜시아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굉장히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장관님께서는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 이용계획이라든지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한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정병국 대회 자체는 늘 흑자를 합니다. 그러나 시설을 사후 운영하는 데 곤욕을 치르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알펜시아가 그런 현상인데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이미 법무부에서 그 지역을 비자면제를, 그쪽으로 투자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비자를 면제해 주는 제도를 이미 발표했고요. 앞으로 동계올림픽이 유치되게 되면 그 지역 일대를 관광특구로 지정해 가지고 운영할 생각입니다.

○윤상일 위원 잘 들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우여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이용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경 위원 알펜시아는 저도 가 봤는데 참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디자인이 저도, 돈이 없어서 살 생각은 못 했지만 돈이 있어도 거기 가서 그러한 콘도미니엄을 살 마음이 날까 하는 정도로 상당히 디자인이 조잡하다고 그럴까 그렇더라고요, 그 빌라들이. 그것은 참 걱정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어떻게 해결책을 잘 궁리를 하셔야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조양호 회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래 사업을 하시느라고 바쁘실 텐데 계속해서 자리를 지키고 앉아 계신 것에 대해서 제가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성원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유치위원장 조양호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우여 감사합니다.

이제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기 때문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존경하는 정병국 장관님께서 우리 위원들한테 선도 보이시는 자리이고 그러나 업무파악을 너무 정확히 하시고 강한 의지를 보이셔서 참 좋은 인상을 국민들에게 주셨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잘해 주셨으면 합니다.

○신학용 위원 위원장님, 30초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우여 예, 말씀하시지요.

○신학용 위원 다시 하나만 더요.

장관님, 이제 프레아시안게임이 또 있어요. 저도 몰랐는데 이건 아마 하게 되면 당연히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프레아시안게임을 가져왔다고 그래 가지고 지금 아마 문광부와 문제점이 있는 모양인데 이건 어쩔 수 없이 가져올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도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보고드릴 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정병국 그 내용을 알고 있고요. 그것을 포함해서, 그것을 전제하지 않고 성공한 대회로 치를 수가 없다고 보고요. 어차피 저희들이 약속을 한 것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학용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우여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제가 위원장으로서, 국제경기는 문광부만의 일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국가의 일이기 때문에 외통부라든지 지경부라든지 관계 부서들이 문광부장관님을 중심으로 해서 긴밀한 유대와 협조·지원이 없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평창위원회에서는 총리께서 직접 일을 거들고 계시지요?

○2018평창동계올림픽유치위원장 조양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우여 그래서 혹시 필요하면 저희들이 주변 장관님들도 한번 모시든지 해서 하여간 저희 국회로서는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관계는 원만히 잘 되고 있지요, 장관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정병국 예, 전혀 문제없고 위로는…… 이게 중요한 것은 대통령님께서 어떻게 움직이시느냐가 굉장히 영향을 미칩니다,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대통령님께서 해외순방 길이라든가 이러한 계기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지금 이 부분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고 계시고요. 실사 현장에까지 직접 내려 오셨고 대통령님의 지시에 의해서 국무총리 이하 관계부처 장·차관들이 PT 하는 데에서 개런티를 하겠다는 한마디 답변을 하기 위해서 그 긴 시간을 할애해서 긴 시간 동안 앉아 있다 그걸 확인해 줄 정도로 적극으로 협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우여 국민의 정성과 우리 모두의 마음이…… 그날 PT 하는 날 보니까 눈이 많이 왔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최선을 다하십시다.

오늘 업무추진 현황보고와 관련해서 각 기관장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 과정에서 제기하신 여러 의견을 유념하셔서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회의에 참석하신 문화체육관광부 정병국 장관님을 비롯하여 각 기관장,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용경 위원 위원장님, 다음에 회의는 언제 합니까?

○위원장 황우여 다음 회의요?

○이용경 위원 예.

○위원장 황우여 그건 간사 간에 다시 협의를 거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용경 위원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는 그만 오시라고 그러지요, 결정날 때까지. 다음에 저희가 회의를 하더라도 여기 앉아 계시는 것보다는 아마 거기 가서 뛰는 게 더 중요할 텐데……

○위원장 황우여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유치위원장 조양호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정병국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우여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7분 산회)

○출석 위원(16인)

권성동	김영진	나경원	노영민
박병석	신학용	윤상일	이명규
이용경	이정현	이학재	이한성
장윤석	주호영	최문순	황우여

○청가 위원(1인)

임영호

○출석 전문위원 및 입법심의관

전문위원	석영환
입법심의관	박명수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정병국
제2차관	박선규
체육국장	김기홍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

부위원장	문동후
기획조정실장	홍승활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위원장	이연택
사무총장	배종신
인천광역시대회 지원본부장	이정호

2018평창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

위원장	조양호
사무총장	하도봉